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2호

가을

2014. 9. 1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110-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 이종찬 편집인: 홍성덕
TEL: 02)734-8851~2 FAX: 02)722-0251 http://www.hongbumdo.org



(중국 길림성 도문시 봉오동전투 현장에 2013. 6. 7 새로 정비하여 건립된 기념비 전경)

봉오동전투 현장에 “반일 전적지” 기념비 재건립

도문시 인민정부에서 2013년 6월에 정비

도문시 인민정부에서는 2013년 6월 7일에, 홍범도장군이 지휘한 봉오동전투 현장인 수남리에 “봉오골 반일 전적지” 기념비를 새로 건립하였다.

곽승지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가 지난 8월 4일 홍범도기념사업회를 방문하여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이 기념비는 1993년 6월에 중국 도문시 위통진부, 도문시 박물관, 도문시 수로국 명의로 처음 세웠으나, 규모가 왜소하여 이를 재정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시켜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한편 이 기념비는 2007년에 도문시에서 “연변조선족자치구 중점문화보호단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념비 오른쪽은 한글로 전적이 적혀있고, 왼쪽에는 중국어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비문에는 “1920년

6월 7일 반일명장 홍범도를 사령으로 최진동을 부사령으로 한 조선민족독립운동 대한북로독군부 반일독립군은 협산 벽곡 봉오골에서 두만강을 건너 침입한 야스와 소좌가 거느린 일본 19사단 소속부대 아라요시 중위의 남양경비대와 싸워 진감한 반일무장투쟁의 첫 봉화를 지켰다. 반일독립군은 빈틈없이 매복진을 쳐놓고 있다가 오후 한 시경 일본군이 기어들자 삼면 고지에서 일제히 불벼락을 퍼부었다. 이 명격전에서 일군 150명을 사살하고 10명을 부상 입혔으며 보총 60여 자루와 기관총 3정 및 권총과 탄약 등 무기를 노획하였다.”고 찬양하고 있다.

이종찬 이사장은 “동북공정으로 경직되었던 한중관계가 박근혜대통령 취임 이후 완화되면서 봉오동전투 전적물을 정비하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하였다.



봉오동전투 전승 94주년기념 국민대회 성황리에 개최

독립전쟁사상 일본 정규군과 싸운 최초의 승전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찬)에서는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홍범도장군이 주도한 봉오동전투 전승 94주년을 맞아 기념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고 국가보훈처와 재향군인회 및 광복회가 후원하였다.

전승 기념행사는 독립운동사에서 홍범도 장군이 세운 빛나는 업적을 기리고, 봉오동 전승이 무장독립투쟁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재조명 하여 국민들에게 역사의식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단체들의 후원으로 연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문준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하여, 홍성덕 상임이사의 연혁보고와 이종찬 이사장의 기념사로 이어졌으며, 강성만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의 치사, 박세환 재향군인회 회장의 축사를 신상태 서울시재향군회장이 대독하고, 박유철 광복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봉오동 전투는 홍 장군이 각지의 산발적인 의병들을 독립군으로 조직화하여 훈련을 거듭한 후, 봉오동으로 일본 정규군을 유인하여 격파함으로써 독립전쟁사상 최초의 대첩을 거두어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경성고등학교 홍기택 학생은 “홍범도장군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였고, 장세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이 “봉오동 전투와 북간도 동포사회”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으며, 종로합창단의 “날으는 홍범도가” 합창과 홍원기 남양홍씨 남양군과 대중중회장의 만세삼창으로 기념식을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대중교 측에서 박민자 전 종무원장 등 신도들과 우당청소년역사교실을 수료한 경성고, 경동고, 중산고 학생들과 각계각층의 시민 3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을 마지막으로 대성황리에 국민대회의 막을 내렸다.

〈이종찬 이사장 개회사〉

..... 홍범도장군의 봉오동 전승 전술은 이순신장군의 전술과 흡사



1920년 오늘, 중국 길림성 화룡현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제의 정규군 대부대를 맞아 서 대승을 쟁취한 역사적인 날이다.

회고해 보건데 우리의 무장투쟁은 정미년(1907) 일제에 의하여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는 날, 이에 분기한 의병들이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항일 투쟁을 전개한 날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것도 서러운데 강제로 군복마저 벗는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치욕으로 여긴 황제의 군대는 이제 백성의 의군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홍범도장군은 포수들을 모아 의병에 가담하였다.

의병들은 일군에 비하여 정신력이나 사기 면에서는 백배 천배 막강했었지만 무기의 수준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았다. 소규모 투쟁을 하다가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로 쫓겨 올라가 유인석 선생을 지도자로 모시고 13도의군을 결성하였다. 연해주와 북간도 일대에 숨어서 무기와 자금을 비축하기 위하여 경제 활동도 하면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홍범도장군은 각지의 산발적인 의병들을 규합, 독립군으로 조직화하게 되었고 훈련을 거듭하였다. 홍범도 장군도 지형에 익숙한 숙달된 무장포수의 전술적 경험을 갖춘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홍 장군은 “조선의 독립은 오로지 무장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는 무오년 독립선언서(1918)의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하였다.

홍범도장군의 기록을 읽을 때 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亂中日記)』를 다시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된다. 물론 이순신 장군의 후손으로 알려진 지담 대사와 함께 전략전술을 논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무공과 같은 겸손과 지혜 양면을 읽을 수 있었다.

홍범도 장군은 항상 자기를 낮추었다.

당시 최진동(崔振東) 도독부군부대와 안무(安武)의 국민회군 병력을 연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를 결성하게 되었는데 홍장군은 북로제1군사령부의 부장직을 흔쾌히 맡았다. 이는 충무공의 백의중군의 정신과 같다.

700여명으로 편성된 북로 제1군은 홍범도장군의 지휘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94년 전 오늘, 강력한 일본 정규군을 두만강으로 월강하도록 유인하고 봉오동 골짜기로 몰아넣어 섬멸하였다.

홍범도 장군이 이처럼 유리한 지형을 이용한 뛰어난 전술은 이충무공의 「한산도 대첩」이나 「명량 해전」에서 12척밖에 남지 않은 열세한 전력으로 막강한 일본 수군을 골짜기로 몰아넣어 뛰어난 전술로 적을 섬멸했던 것과 같은 전술이다..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한 이후 부하들이 홍범도 장군에게 그런 뛰어난 병법에 대하여 물었을 때 “나는 포수로서 오랜 경험을 쌓았네. 맹수를 잡자면 가까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네. 그게 전부일세.”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말했다고 한다.

봉오동 대첩은 우리 무장독립투쟁사에서만 큰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같이 주변의 강대국에 의하여 포위된 환경에서 국력의 열세를 극복하여 승리를 쟁취했던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조명해야 한다.

2014년도 제2차 임원회의, 기념사업 중간 점검

71주기 추모식은 10월 24일, 고궁박물관에서 개최



〈임원회의 참석자 일동〉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2014년 제2차 임원회의가 7월 16일 종로 인사동에 있는 한식집에서 이종찬 이사장과 김유진 고문 등 임원 17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작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70주기 추모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최영근 전 고려일보 사장이 참여하여 각별한 환영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28일 제1차 임원회의에서 전형위원회에 위임한 임원개선에 대한 추진이 있었고, 6월 7일 개최한 봉오동 전승 기념 국민대회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다.

회보 날으는 홍범도장군 계절별 발간

또한 “날으는 홍범도장군” 회보 제1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계절별로 발행하도록 했으며, 제2호는 가을 호로 9월 1일자로 발간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홍성덕 상임이사는 회보 제작에 공로가 많은 손광춘 도서출판 수서원 사장을 홍보 이사로 추천하여 즉석에서 선임하였다.

이어서 71주기 추모식과 학술회의는 추모일이 토요일이라 하루 앞당겨 10월 24일 (금) 오후 2시에 경복궁 경내에 있는 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10월 24일 개최될 추모식은 제1부 추모식과 제2부 학술회의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부 추모식에서는 이종찬 이사장의 기념사와 박유철

광복회장의 추모사에 이어, 이동순 영남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홍범도장군 추모시를 낭독할 예정이다. 이동순 교수는 홍범도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서사시로 창작하여 10권의 책으로 발간한 시인이다.

학술회의는 “홍범도장군의 의병투쟁과 청산리 전투”를 대주제로 진행한다.

제1주제 “홍범도장군의 의병투쟁과정과 무장투쟁에 미치는 영향”은 심철기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연구교수가 발표하고, 신호승 기념사업회 연구부장이 토론한다.

제2주제 “청산리전투에서의 홍범도장군의 역할”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이 발표하며, 심산기념사업회 학예실장인 홍윤정 박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학술회의 주제는 의병투쟁과 청산리전투

학술회의의 진행과 종합토론은 김상기 충남대학교 교수가 맡았는데, 김 교수는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을 역임한 의병투쟁사 연구학자이다.

2014년 임원분담금 납부현황(9. 1 현재까지)

성명	금액
이종찬	1,000,000
홍성덕	1,200,000
홍현일	1,500,000
손양호	1,000,000
류병균	1,000,000
홍성종	1,000,000
김희일	1,000,000
김유진	101,350
홍일량	100,000
합계	7,901,350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신한은행 100-027-188760

봉오동전투 전승 제94주년 행사 이모저모



〈국민의례(묵념)〉



〈이종찬 이사장 기념사〉



〈박유철 광복회장 축사〉



〈신상태 서울시재향군인회장 축사〉



〈종로구립합창단 합창〉



〈경성고등학교 학생〉

KBS 제1TV 광복절 기획, 「역사저널 그날」 2014. 8. 16(토) 21:40

“항일무장투쟁의 전설, 홍범도 장군” 방영



홍범도장군은 원이 넘는 나이에 봉오동전투뿐 아니라 청산리대첩까지 승리로 이끈 항일무장투쟁의 전설적 영웅이다. 조상국의 광복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쳤던 업적에 의문을 가지고 숨겨져 있다가 KBS 제1TV <역사저널 그날>에서 최원정(MC), 신병주(건국대 교수), 류근(시인), 신주백(연세대 교수), 이동순(영남대 교수), 이다지(하늘고 교사) 등이 8월 16일 새롭게 조명하여, 다시 살아났다.

□ 낮익은 존재, 하지만 낯선 실체 홍범도. 그는 누구인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머슴, 군인, 행자승 등이 되어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았던 홍범도. 당시는 일본이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무력 탄압을 일삼던 시대였다. 결국 강직하고 의협심 넘치는 성품의 홍범도는 조국을 위해 항일무장투쟁의 길을 걷게 된다. 타고난 사격술, 뛰어난 리더십으로 어려운 시절 민족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홍범도. 국가로부터 혜택 받지 못한 하층민 출신의 홍범도는 1985년부터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에게 부인과 아들을 잃었지만, 중단 없는 무장투쟁으로 “날으는 홍범도”, “축지법을 쓰는 장군”, “백두산 호랑이” 등 전설적인 영웅으로 평가되었다.

□ 봉오동전투의 전설, 청산리전투의 숨겨진 영웅 홍범도

‘홍범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봉오동전투. 이때 ‘무적 황군’이라 불렸던 일본군을 상대로 독립군 연합부대가 값진 승리를 거뒀다. 52세의 노장 홍범도 장군은 뛰어난 지휘 능력과 유격전술로 봉오동전투에서 독립전쟁사상 일본정규

부대를 섬멸한 첫 전승을 거두었다. 청산리전투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중심인물이었다.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부대와 함께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부대가 대격전을 벌여 청사에 빛나는 대첩을 거두었다.

그러나 홍 장군은 이범석이 자서전 “우등불”에서 폄하하였고, 말년을 러시아에서 활동함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재평가되어 현재는 역사교과서에서 김좌진 장군과

똑같이 업적을 평가하고 있다. 김좌진장군 부대가 일본군에 포위되어 고전할 때, 홍범도 부대가 일본군을 격퇴하고 구한 것이다.

□ 민족의 혼이 담긴 독립군들의 노래-

독립군가, 날으는 홍범도장군가

“홍대장이 가는 길에는 일월이 명랑하고 왜적 군대 가는 길에는 비가 내린다. 에엠야 에엠야 왜적 군대가 막 쓰러진다.” 날으는 홍범도 장군가는 가사만 전해지다가 근래 홍성규가 곡을 붙여 신출귀몰한 홍 장군의 업적을 노래하고 있다.

□ 홍범도, 머나먼 땅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다

그러나, 1937년 69세의 나이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당한다. 타국에서도 끝까지 조국 독립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홍범도. 그는 결국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해방 2년 전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눈을 감는다. 한 평생 나라를 위해 몸 바쳤던 그의 마지막 행보는 고려극장 경비원으로 너무 초라했지만, 고려인들은 홍범도 연극을 만들어 그를 찬양했고, 크즐오르다 공원묘지에 장군의 묘역을 세워 추모하고 있다.

우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로서는 지난 10여 년간 기념사업을 통하여 홍장군의 업적을 재평가되도록 노력했고, 작년 70주기 추모행사에서 연극 “홍범도”를 72년만에 재연하도록 극본을 발굴하고 고려극장에 권고하여 상연하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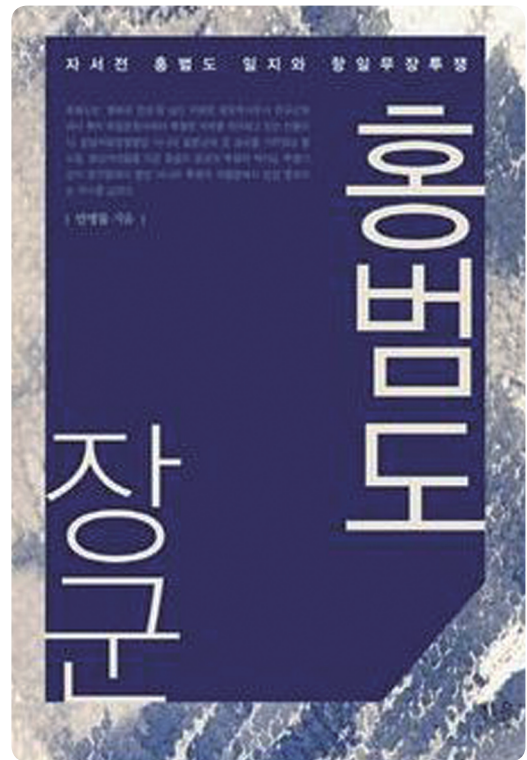
〈홍범도장군 저서 소개-1〉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저서

“홍범도 장군-자서전 홍범도 일지와 항일무장투쟁” 서평

홍범도(1868~1943)는 동학농민운동 이후 1890년대 후반 항일의병투쟁에 나선 이래 3·1운동이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로 대표되는 항일무장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한 무장독립운동의 독보적 존재이다. 그러나 그동안 청산리 전투의 또 다른 주인공인 김좌진 장군과 비교하여 소홀하게 조명된 것은 우리 사회의 메카시즘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홍 장군은 평양에서 나서 1908년 일본군에 쫓겨 압록강 건너 망명한 뒤 1943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숨지기까지 많은 세월을 옛 소련 땅에서 보냈기에 그의 생애가 잘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다. 그가 이끈 부대가 청산리 전투에서도 주력군의 하나였다는 사실도 1990년대 들어서야 알려졌다.



〈홍범도 장군〉은 홍범도가 자신의 육필로 자신의 항일 활동을 독자에게 들려주는 책이다. 홍범도가 쓴 ‘홍범도 일지’의 여러 필사본을 반병률 교수가 고증하고 해제와 주석을 붙이고, 그간 홍범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함께 수록한 일종의 논문집이다.

일지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홍범도 일지’는 나날의 일기라기보다는 자전적 약전이다. 말년에 이르러 지난날을 기록한 회고록이다. 반교수는 “적어도 1938년 7월 말 이후에 홍범도가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필사본(김세일본, 이인섭본, 이함덕본) 가운데 반 교수가 정본으로 판단한 것은 이함덕 본이다. 연극 〈홍범도〉를 무대에 올렸던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의 당책임 비서 김진의 지시에 따라 이 극장 배우 이함덕이 1958년 4월 16일 ‘홍범도 일지’의 원본을 필사한 것이다. 한국에 처음 ‘홍범도 일지’의 존재를 알린 김세일본과 이인섭본은 이를 다시 옮겨 쓴 것이다.

‘홍범도 일지’는 출생부터 무장독립투쟁, 중앙아시아에서 보낸 말년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가식 없이 덩덤하게 기술”하고 있다. 항일운동뿐 아니라 일본군의 동향과 만주, 연해주,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언어나 풍습 같은 일상생활의 단면도 기록해 놓았다. 전투에서 승리한 사실만 아니라 처

절하게 당한 것도 솔직하게 그대로 썼기 때문에 사료적인 가치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20년 말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뒤의 일을 쓴 대목에서 홍범도는 이렇게 적는다. “청산리전투를 치르고 도피하다 오도양창에서 추운 밤을 지새는 도중 일본군과 중국 홍우재의 공격을 받아 우등불 앞에서 불쑥이던 군사는 씨도 없이 다 죽고 그 나머지 사망으로 도주하였다.”

〈홍범도 장군〉 저서에는 이밖에도 홍범도가 직접 쓴 ‘리력서(이력서)’, 소련공산당에 입당할 당시에 쓴 문답 형식의 자기소개서 ‘앙케이트’, 사망하기 이태 전인 1941년 11월 카자흐스탄의 한글 신문 〈레닌기치〉에 쓴 격문 ‘원췌를 갚다’ 등을 해제와 더불어 수록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허미경 기자는 7월 13일자 서평에서 〈홍범도 장군〉은 20세기 초 조선말로 씌어 있는데다 평안·함경도 사투리에 조선식 러시아어로 된 사회주의체제 용어들이 왕왕 들어 있어 일반 독자들이 읽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홍범도 장군〉은 여기에 각주를 달아 이해를 돕는 것”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정리 황원섭).

(도서출판 한울, 2014. 7. 5, 정가 25,000원)

임원동정

이종찬 이사장



이종찬 이사장은 6월 30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신한대학교(총장 김병옥) 한민족평화통일연구소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연구소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통질성을 기반으로 역사적으로 접근하여 통일방안을 연구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이우재 고문



이우재 윤봉길의사 월진회 회장은 8월 27일 오후 3시, 예산문화원에서 “윤봉길의사 선양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월진회는 예산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 의사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설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유진 고문



항일독립전사연구소 소장(14대 국회의원)은 월간 “헌정” 7월호와 “4월의 함성” 창간호에 홍범도장군의 승전 내용을 비롯하여 북만주 독립군 무장투쟁 전적지 탐방기를 게재하였다. 아울러 월간 “신문예”에 신인 수필가로 등단하여 7월호에 “4·19와 나의 어머니”라는 수필을 실었다.

김창환 감사



김창환 법무법인 참 대표변호사는 7월 21일,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총재로 출범한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사무실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신동해빌딩이며, 전화는 02-2038-2210 이다.

홍헌일 감사



홍헌일 서서울향토문화연구원장은 은평문화원에서 주관하여 7월 14일 개최한 제4기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에서 “서울의 탄생과 역사변천” 등 4과목을 강의하였다.

홍성덕 상임이사



홍성덕 전 주독일대사관 공사는 2014년 2학기부터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경호와 보안”에 관한 강좌를 맡아 강의하고 있다.

김희일 이사



김희일 서울 홍산문화중국도자박물관 관장은 8월 11일 중국 강동성 수장가협회 초청으로 도자기 전시회 협의차 중국과 홍콩에 다녀왔다.

이영철 이사



이영철 4·19포럼기념사업회장은 7월 23일 개최된 도봉구문화원 정기총회에서 명예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이 회장은 도봉구문화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황원섭 이사



황원섭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8월 22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고 현재 군사영어학교와 국방경비대를 연원으로 한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조속히 시정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국군의 연원은 헌법에 따라 우리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으므로 임시정부 군사조직에서 시작해야 된다.

김도경 국장



김도경 한국여성문예원 원장은 11월 8일 회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양도성 남산지구 장충단 공원걷기 행사와 워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극과 음악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전화는 02)2268-9210이다.